**장애물 헐기**

모든 사람은 속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봉사합니다.

**2015년 겨울 (외상성 뇌손상)**

**주제**

**2015년 겨울** - 외상성 뇌손상. 이번 주제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교회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다루어본다.

**2015년 봄 -** 친구그룹의 영향력. 당신의 교회가 친구그룹(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사역과 비슷한)으로부터 분리된 어른들을 어떻게 모임에 동참시키는지에 대해 다룬다.

2월 16일까지 당신의 경험을 보내주세요

Email: mstephenson@crcna.org • tdeyoung@rca.org

**달라진 기도에 대한 관점**

 **캐서린 홀브룩**

 ‘당신을 위해 기도 하겠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인들을 격려하기위해 또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해 선한 의도로 얼마나 많이 이런 말들을 했었는지 모른다. 아마도 교회를 나서기 전 짧게 혹은 다시 그 사람을 다시 보았을 때 잠깐 기도했을 것이다.

2013년 8월, 호프 칼리지 2학년이었던 우리 아들 앤드류가 차 사고를 당했을 때,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었다. 운전을 했던 그의 친구는 사망했고 앤드류는 심한 외상성 뇌손상 상태에 있었다. 나와 남편과 두 딸은 혼수상태인 아들의 병원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는 미시건까지의 장거리 비행동안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하며 갔다.

병원에서의 첫 며칠 동안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가족라운지 안에 모였다.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한 번에 두 명씩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려고 차갑고 어둡고 조용한 방으로 살며시 들어갔다. 그의 방에 있는 상황판의 치료 목표 란은 비어있었다. 그는 치료의 목표조차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했다. 그 아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라고 썼다.

모든 방문객들과 우리는 앤드류의 침대머리 맡에서 손을 잡고 기도했다. 라운지에서도 병실 밖 복도에서도, 목사님과 오래된 혹은 최근의 모든 친구들이건, 친척들, 앤드류의 대학친구들, 교수님들, Hope스텝들,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앤드류는 16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3개월의 치료를 위해 재활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그의 첫 번째 재활치료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혼자 먹고 글자를 쓰고 말하고 걷고 서고 앉는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했다.

그는 지금 Hope에 있는 대학기숙사로 돌아와 두 개의 과목을 듣고 있다. 그는 매일 그의 단기기억상실을 만회하기위해 열심히 노력중이다. 우리는 그의 용기가 자랑스럽다. 매일 아침 나는 “당신의 기적적인 치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한다.

앤드류가 병원에 있었을 때, 한 친구가 자신의 평생의 불면증과의 길고긴 싸움에 대해 썼었다. 그는 밤에 깰 때마다 앤드류를 위해 기도했다. 사고 후 뉴욕에 있는 우리교회 사람들은 앤드류를 위해 철야기도회를 가졌고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를 이어갔다. 어떤 불신앙의 직장동료는 앤드류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마음의 큰 부담을 느꼈다고도 했다.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의 사촌들은 그들의 모든 커뮤니티가 앤드류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세계 곳곳에서 앤드류를 위한 기도는 계속되었다.

비록 앤드류의 외상성 뇌손상은 우리의 삶을 바꾸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치료를 믿고 2013년 8월 이후 우리의 모든 궂은 날이나 좋은 날에 그의 사랑의 손을 보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할 때, 나는 그것의 특권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다시는 기도의 엄청난 힘을 믿지 못한 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있어주는 사역**

 **캐린 그랜벅-마이클슨(그랜드 라피드,미시건의 RCA 목사)**

지난 10년 동안, 나는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 휴유증을 가진 30명의 사람들이 사는 그룹 홈의 목사였다. 내 업무은 단순히 친구가 필요하거나 가족들이 돌봄이 어려운 사람들 개개인을 도와주는 것이었다.

나는 성경이야기로 그날의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가끔은 음악이나 예술, 실제 삶의 적용으로 설명되기도 했다. 한 가지 실패한 사례는 “예수 사랑하심은”을 노래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이런 주일 학교식 접근방식이 몇몇 사람들과는 잘 맞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업무방식을 새롭게 만들게 했다.

친밀함과 우정을 갖춘 친구 같은 여행자로써, 나는 각자의 특별한 강점이나 관심거리로부터 힌트를 얻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것은 가끔은 함께 스크랩북을 만들면서, 패션잡지를 함께 보면서 혹은 퍼즐을 맞추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도록 돕는 것을 의미했다. 또 한편에서는 자녀들로부터 분리되어진 부모된 그들과 공감하는 것을 의미했다. 어떤 때 나는 기도로 방문자들과 가까워졌지만 또 다른 때에는 그 기도가 부자연스러워지기도 했다

사역의 상호작용-주고 받는-을 경험하면서 나는 각 사람에게 순간순간 충분히 함께 주어야한다는 것을 배웠다. “모두를 위한 맞춤형”공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안 순간부터 나는 각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접근방식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사역에 있어 내 접근방식을 변화시켰다. 대화자체는 여전한 도전거리이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은 얼굴에 드러나는 약간의 변화나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그들의 아픔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나의 업무는 그들과 함께 앉아 미묘한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심하게 떠듬거리는 말투는 또 다른 도전적인 장벽이다. 말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에서의 교량역할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대화하기를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 가끔은 언어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함께 침묵함으로 지지를 표현하는 가벼운 스킨쉽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뇌손상을 가진 아들이나 어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들과 충분히 함께 해주는 것이다. 깊은 관계를 세우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라. 항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우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라. 큰 목소리나 어린애 같은 말투는 피하고 말로 표현을 하든 못하든 반응할 개인적인 시간을 주라. 그리고 계속 말하기 전에 이해했는지 확인하라.

**믿고 순종하는 법 배우기**

글랜 러트커스(중앙 웨스리안 교회,홀랜드 미시건)

내 아들 조슈아는 2012년 8월 23일 중형트럭 앞에서 깔렸다. 그는 골반(5번)이 부서지고 외상성 뇌손상과 얼굴이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뇌압으로인해 조쉬는 거의 3주를 의식불명상태로 있었다.

사고 후 며칠이 지나고 아무런 중요한 변화도 보지 못하자 내 마음은 낙심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조쉬를 두고 아내와 내가 머무는 병원가족실로 돌아왔다. 지난 며칠동안 내가 겪은 모든 것이 나만 겪는, 지독하게 슬픈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작은 거실의 소파에 누워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눈물이 났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었다. 거의 1시간 가량을 하나님께 앞으로 조쉬의 삶을 위해 또 그의 부모인 우리를 위해 수없이 구했다.

그러는 동안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찌어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 주님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 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래된 찬양을 하나 떠올리게 하셨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 내 눈에서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밤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사고 후 우리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조쉬의 다섯 형제들은 중국, 조지아, 일리노이, 테네시, 미시건으로부터 와 첫 주를 병원에서 함께 보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의 중요함을 배웠다. 친구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위해 찾아주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연약한 것일 수밖에 없는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다른 가족들과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었다.

조쉬는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내고 두 달을 더 재활병원에 있었다. 11월 1일 조쉬는 집으로 돌아왔고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첫 걸음을 떼었다. 외상성 뇌손상에도 불구하고 조쉬의 성격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많았고 웃기 좋아하고 변하지 않은 유머감각을 가졌다. 사고 전에 그가 가졌던 꿈 중에 몇 가지는 눈에 드러나지 않았고 짧은 기억력이 때때로 좌절감을 가져오게 했다.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조쉬를 살려주셨다고 믿는다. 조쉬는 어렸을 때 “에스키모 선교사”가 될 거라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열정적이다. 그는 마이애미 아다에 있는 키스톤(CRC)에 소속되어 십대와 청년 성경공부 리더들을 돕고 있으며 또 굿윌사에서도 일한다. 몇 년 동안이지만 우리는 함께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나와 다른 남자와의 결혼**

낸시 욘커(제일 크리스챤 개혁교회, 알렌데일 미시건)

2011년 6월 6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편은 시속 60마일로 달리던 차에 치였다. 해롤드의 부러진 발목과 부상은 잘 치료되었지만 외상성 뇌손상은 그를 바꿔놓았다. 6개월의 재활치료 후 해롤드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매일 저녁이면 그는 그의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시간이 될 거라 했지만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도움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해롤드와 나는 좀 개인적인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의 큰딸은 내가 아침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롤드 곁을 지켜주고 심부름을 도와준다. 여름동안, 나는 손녀딸이 오면 바깥일도 할 수 있다. 교회의 형제들은 우리를 위해 크고 사용이 쉬운 욕조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전기배선을 고쳐주고 장작을 패서 쌓아주었다. 많은 손님들이 간식거리와 격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전해준다.

해롤드는 단기기억을 상실했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점점 씻기를 싫어하고 면도하기도 싫어하고 양치질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TV도 볼 수가 없다 왜냐면 보고 있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거실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소파위에 곰인형이 진짜 아기 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가구를 옮기면서, 벽에서 사진을 떼면서, 스토브와 놀면서 “일”하기를 시도한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자주 내가 아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다. 해롤드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알지만 그들이 여전히 어리다고 생각한다. 그런 해롤드를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손자손녀들의 행사나 교회활동 등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가 폭력적인 언어를 쓰거나 난폭해지면 그가 무서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위험에 처할때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신다. 가끔 악마가 해롤드의 다친 머리를 괴롭게 하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마가 떠나라고 말한다.

우리가 59년전 결혼서약을 할때, 나는 그에게 헌신을 약속했다. 해롤드를 돌보면서 기쁨도 있지만 대부분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외롭고 무서웠다. 이따금씩 해롤드는 나에 대한,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분명하게 말하기도 한다. 그런 좋은 날에 그의 간증을 얼마나 듣고 싶은지! 나는 종종 해롤드를 차분하게 하기위해 피아노를 치며 그의 노래듣기를 좋아한다. 놀랍게도 해롤드는 오래된 찬송가의 많은 절을 기억하고 있고 몇몇 엉뚱한 노래들도 기억하고 있다.

아침에 깰 때 그날이 좋은 날이 될지 나쁜 날이 될지는 나는 결코 알 수가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는 모든 상황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모두를 돕는 안전한 교회**

 사라 위티/ 북 블렌든 개혁교회(허드슨빌 미시건)

1989년 5월, 내가 14살이었을 때, 38살이 되신 어머니는 심각한 자동차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상태가 되셨다.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셨을 때, 그녀의 성격은 정말 극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스케쥴, 당신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당신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엄마를 가진 것처럼 이상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고 단지 엄마가 집에 돌아온 것만으로 내가 행복해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나를 점점 더 고통스럽게 했다. 유감스럽게도 나에게는 나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교회가 없었고 엄마에게도 그런 교회는 없었다.

최근에 엄마는 혼자서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녀는 충동적이다. 그런 엄마가 큰 결정이나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나와 상의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엄마를 계속 돌봐야하는 샌드위치 같이 낀 세대로 나는 꼼짝할 수 없지만 엄마는 최근 다니셨던 두 교회에서 사랑과 도움을 받고 있다.

엄마의 사고 후 대략 5년쯤, 엄마는 다시 세 번째 미시건, 그랜드 라피드에 있는 개혁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 교회는 엄마의 개인적인 습관이나 모든 것에 꼭 맞추어주었다. 처음 엄마가 교회에서 뭔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했을 때 교회는 엄마가 할 수 있을지 의아해 했고 엄마가 잘해 내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도와줄 사람을 함께 세워주었다. 엄마는 단기기억상실증이 있고 지난 주에 배운 게 뭔지 기억할 수 없어도 소그룹에서 환영받았다. 엄마를 아이들과 함께 혼자 둘 수는 없지만 정말 멋진 아이들의 보조도우미였다. 엄마는 사고 후 많은 부분에 아이들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렸다. 게임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같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가족의 밤이나 성경학교를 도울 수 있었다. 최근에는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올리브 개혁/하버 라이프 ,그랜드빌 미시건)로 옮겨서 거기서도 정말 환상적인 경험들을 하고 있다.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먼저 교회는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가족구성원이 집으로 오면, 그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했음을 인지해야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라. 특별히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계속해서 도와줄 개인이나 커플, 가족을 정해주라. 가족구성원들이 그들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제공해 주라.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돕고 지지하고 애정을 가진다면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보살핌을 받게 되고 그것은 그 교회에 도리어 축복이 되기도 한다.

**편집자 주**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당신의 이웃**

반응하고 싶지 않은 엄청난 필요를 보게 될 때는 다른 곳을 찾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이곳에 쓰여진 대부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볼 때, 외상성 뇌손상으로 영향받기 시작한 가족들에게는 회피한다는 것은 선택이 될수 없었다.

교회들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주제 내에서 제안되어진 것들을 떠나, 2015년 겨울 “오늘의 RCA"에서는 미시건 교회가 2012년부터 뇌와 척추환자들의 시설로부터 한길 건너에서 45분의 짧은 예배와 함께 매월 교회적인 모임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싣는다.

그랜드 라피드에 있는 임마누엘 개혁교회의 장로로 은퇴한 알 쇼메이커는 “이곳은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라고 한다. “ 이들이 가두어 진 채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바로 다음 문에 서 있지요. 문자 그대로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찬양과 성서적 고찰, 기도시간과 교제가 있는 이런 방문들은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과 모임의 회원들에게 인기가 있다. 지역안에서 이러한 연대들이 어떻게 읽혀지는지는 예배 후 모임들로 알 수 있다. www.rca.org/news/hope-next-door를 방문해 보세요.

당신의 교회와 집 건너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당신은 어떤 이웃입니까?

테리 디영

**온라인으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면으로 된 뉴스레터의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장애물 헐기의 더 많은 기사들은, 편집자에게 편기쓰기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4 북미주 개혁 교단와 미주 개혁 교단의 장애우 사무처.

장애물 헐기는 북미주개혁교회 CRC 장애우 사무처에서 학기별로 발행함,

1700 28th S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and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그리고 미주개혁교회 RCA 장애우 사무처, 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마크 스트븐슨목사, CRC 장애 사무처 책임자(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 그리고 테리 디영목사, RCA 장애우 사무처

코디네이터 (616-541-0855; tdeyoung@rca.org), 장애물 헐기를 함께 편집함.

위 기사 사본들을 만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힐때에만 허락을 함.

북미주 개혁교단과 미주 개혁교단의 공동 장애 사역.

www.crcna.org/disability